

평택해수청, 내항선 종사자 대상 구명·소화설비 시연 실시

- 구명뗏목·휴대식 소화기·신호탄류 실제 시연, 선원 비상대응 역량 강화

평택지방해양수산청(청장 전재훈)은 9월 1일 평택·당진항 동부두 내항관리부두에서 내항선 종사자 및 선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구명·소화설비 현장시연 및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했다.

이번 현장시연은 해양사고 발생 시 선원들이 구명·소화설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설비의 작동 방법과 사용 절차를 직접 확인하고 체득하기 위해 마련됐다. 아울러 현장 종사자와의 소통을 통해 안전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예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문화 확산 현장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.

이날 행사에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을 비롯해 내항선 선원 및 선사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했으며, 뉴에버캐슬호(예인선) 등 3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.

현장에서는 ▲구명뗏목 투하 ▲휴대식 소화기 방사 ▲신호탄류 작동 등 실제 비상상황에서 활용되는 주요 안전설비의 작동 과정을 직접 시연했다. 이를 통해 선원들이 비상상황에서 안전설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.

박배순 선원해사안전과장은 “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안전설비의 적절한 사용이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하다”며, “앞으로도 선원들이 실제 사고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선원해사안전과 선원해사안전과 선원해사안전과	책임자	과 장	박배순 (031-680-7220)
		담당자	계 장	송광호 (031-680-7224)
		담당자	주무관	김찬휘 (031-680-7297)